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이윤경^{1,2} · 한미아¹ · 박종¹ · 류소연¹ · 최성우¹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¹,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²

= Abstract =

The Associations between Gender-stereotype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Yunkyung Lee^{1,2} · Mi Ah Han¹ · Jong Park¹ · So Yeon Ryu¹ · Seong Woo Choi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¹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²

Purpose: The numbers of male nurse were steadily increased.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GS)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Total 414 nursing students (109 male and 305 female) were sampled from two nursing college in Gwangju. Data collected from March 5th to 17th 2015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analyses, t-test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association between G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Results: Overall GS score was 2.4 ± 0.47 . And GS scores of male students (2.6 ± 0.48)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ore of female students (2.4 ± 0.45). The average scores of academic stress were similar between male student (2.1 ± 0.46) and female students (2.2 ± 0.47). The average score of employment stress was similar between female students (2.4 ± 0.49) and male students (2.3 ± 0.52).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mestic G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in male nursing students ($\beta = 0.125$, $p = .009$).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otal GS ($\beta = 0.122$, $p = .014$) and occupational GS ($\beta = 0.145$, $p = .017$)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occupational G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ress in male students ($\beta = 0.206$, $p = .048$).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social GS ($\beta = 0.147$, $p = .012$)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ress.

Conclusions: G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 association GS and stress were varied by subcategory of GS and sex. Assessment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GS might be helpful to decrease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academic, employment, gender, gender-identity, gender stereotypes, stress

※본 논문은 이윤경(지도교수: 한미아)의 석사 학위 논문의 축약임.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한미아,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번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번호: 062-230-6481, 팩스번호: 062-225-8293, E-mail: mahan@chosun.ac.kr

원고접수: 2015년 8월 5일, 원고심사: 2015년 8월 28일, 원고채택: 2015년 9월 23일

Copyright © 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서 론

간호사는 여성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간호직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Lee & Kim, 2014). 2004년 829명(0.4%)이던 남자 간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074명이 배출되었고, 2012년 우리나라의 등록된 남자 간호사는 5,183명으로 전체 면허 간호사 비율이 29만 6,533명 중 1.8%를 차지한다(Lee et al., 2012). 또한 간호학과 남학생수도 2000년 662명(1.8%)에서 2011년 7,968명(13%)으로 12배 증가하였다(Kim et al., 2014).

남자 간호 대학생들은 남자인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온 일부 간호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다(Kim, 2004). 남학생들은 간호학을 선택한 후 여성 지배적인 교과과정 및 학과 분위기 뿐만 아니라 여학생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Lee et al., 2005). 또한 기본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학 총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남자 간호학생의 경우 긴장감이 있었고, 실습 장소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였다(Kim, 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성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교과서에 간호사는 여성이라고 기술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이라고 기대하는 것 등 간호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O'Lynn, 2004). 이처럼 간호사는 여성을 대표하는 직업으로 인식하며, 남성과 여성에서 기대되는 직업이나 성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경향이 남아 있다(Pack et al., 2014).

이처럼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인 특징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사실에 의거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여성적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을 성 고정관념이라고 한다(Lee & Kim, 2003).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사회문화적 기대를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경직

되고 단순화된 시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Yun et al., 2010)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제한하거나, 융통성 없는 반응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Joo, 2005). 간호분야와 관련해서는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Ahn et al., 2009).

기존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생활스트레스 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Song, 2012; Yang et al., 2014), 남자 간호대학생이나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성정체감, 학교적응,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Kim et al., 2014; Pack et al., 2014). 간호 대학생들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학업 성취도 저하 및 의욕상실이 발생되어 간호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Song, 2012). 따라서 간호대학생에서 학업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Park et al., 2002), 간호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등이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며(Yang et al., 2014), 연령, 학과성적, 등록금 부담도 등이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었다(Yoo & Shin, 2013).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대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Pack et al., 2002). 이처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실태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하부영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의 간호학과와 총 학생 수는 신입생을 제외하고 남학생 약 135명, 여학생 약 700명 정도로 2~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였으며, 각 대학의 학과장님의 동의를 구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를 430부 배부하여 자가 기입 후 회수하였다. 총 428명(96.2%)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 여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진행에 관해 C대학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

2. 조사변수

1)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2, 3, 4), 부모님과 동거여부, 한 달 평균 용돈(10만원 이하, 11~30만원, 31만원 이상)을 조사하였다. 평생흡연경험(있음, 없음), 음주빈도(술을 마시지 않는다, 1~2회/주, 3회 이상/주), 운동 상태를 조사하였다. 운동은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주 몇 회하는지 조사한 후, 하지 않는다, 1~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학기 성적(≤ 3.0 , $3.1 \sim 3.5$, $3.6 \sim 4.0$, ≥ 4.1), 임상실습경험(유, 무), 간호(학)과 진학 동기(본인 스스로 선택, 성적에 의해 결정, 가족의 권유,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 취업의 용이성, 기타),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있음, 없음)를 조사하였다.

2)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은 Kim (1993)이 작성한 총 33문항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부영역으로 가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사회적 성 고정관념 3문항, 직업적 성 고정관념 5문항, 외형적 성 고정관념 4문항, 심리적 성 고정관념 7문항, 지적 성 고정관념 5문항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정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고 여자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육아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등의 가정생활에서의 고정관념이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정치는 남성의 역할이며 여성은 사회활동보다는 육아나 가사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다. 직업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기관의 장이나 행정직, 여자는 서비스업이나 간호사와 같은 직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에 비해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고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성 고정관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학적 능력, 창의력 등 다방면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3; An & Chu, 2011). 5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Hong (1995)이 수정한 총 23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하부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5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Schaufeli 등(2002)에 의해서 개

발된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Shin (2012)이 번역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총 15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 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취업 스트레스 측정 도구 Jung과 No (2001)에 의해 개발하고 Shin (2012)이 수정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총 14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의 3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검정을 이용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정도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Jwa, 2014) 성별에 따라 층화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및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는 상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모델 I에는 전체 성 고정관념을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성 고정관념 하부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항목인 가정적 성 고정관념, 사회적 성 고정관념, 직업적 성 고정관념, 외형적 성 고정관념, 심리적 성 고정관념, 지적 성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성 적

1.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총 414명으로 남학생은 109명(26.3%), 여학생이 305명(73.3%)이었다.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18~24세는 78.8%, 25~29세 18.3%이며 30세 이상 2.8%이며 여학생의 경우 18~24세는 85.2%, 25~29세 7.9%이며 30세 이상 6.9%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58.0%이었고 한 달 평균 용돈으로 10만원 미만 사용하는 경우 10.3%, 11~30만원 사용하는 경우는 54.3%, 31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35.3%이었다. 남학생(53.2%)과 여학생(54.8%) 모두 한 달 평균 용돈을 11~3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은 46.8%, 여학생은 3.6%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여학생 53.1%, 1주일에 1~2회 술을 마시는 경우 남학생은 64.2%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일주일 동안 땀 흘릴 정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여학생은 68.9%이며, 1주일에 1~2회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45%,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24.8%, 여학생은 10.2%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지난 학기 성적은 3.1~3.5인 경우 남학생은 36.7%, 여학생은 33.8%이며 3.6~4.0인 경우 남학생 16.5%, 여학생 36.4%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 (Table 1).

2.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

성 고정관념은 전체 2.4 ± 0.47 점이었고, 남학생은 2.6 ± 0.48 점, 여학생 2.4 ± 0.45 으로 경계역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p=.093$). 하부영역의 평균평점은 외형적 성 고정관념 2.8 ± 0.72 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적 성 고정관념 2.8 ± 0.60 점, 심리적 성 고정관념 2.4 ± 0.6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by Sex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14)	Male (N=109)	Female (N=305)	p
Age (year)	18~24	346 (83.6)	86 (78.9)	260 (85.2)	.001
	25~29	44 (10.6)	20 (18.3)	24 (7.9)	
	≥30	24 (5.8)	3 (2.8)	21 (6.9)	
Grade	2	165 (39.9)	45 (41.3)	120 (39.3)	.809
	3	153 (37.0)	41 (37.6)	112 (36.7)	
	4	96 (23.2)	23 (21.1)	73 (23.9)	
Living with parents	Yes	240 (58.0)	60 (55.0)	180 (59.0)	.251
	No	174 (42.0)	49 (45.0)	125 (41.0)	
Average allowance a month (₩10,000)	≤10	43 (10.4)	15 (13.8)	28 (9.2)	.393
	11~30	225 (54.3)	58 (53.2)	167 (54.8)	
	≥31	146 (35.3)	36 (33.0)	110 (36.1)	
Lifetimes smoking experience	No	352 (85.0)	58 (53.2)	294 (96.4)	<.001
	Yes	62 (15.0)	51 (46.8)	11 (3.6)	
Drinking frequency	Never	190 (45.9)	28 (25.7)	162 (53.1)	<.001
	1~2/week	201 (48.6)	70 (64.2)	131 (43.0)	
	≥3/week	23 (5.6)	11 (10.1)	12 (3.9)	
Exercise	Didn't	243 (58.7)	33 (30.3)	210 (68.9)	<.001
	1~2/week	113 (27.3)	49 (45.0)	64 (21.0)	
	≥3/week	58 (14.0)	27 (24.8)	31 (10.2)	
Academic score (full mark=4.5)	≤3.0	78 (18.8)	45 (41.3)	47 (15.4)	.002
	3.1~3.5	144 (34.8)	40 (36.7)	103 (33.8)	
	3.6~4.0	137 (33.1)	18 (16.5)	111 (36.4)	
	≥4.1	55 (13.3)	6 (5)	44 (14.4)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97 (47.6)	55 (50.5)	142 (46.6)	.258
	No	217 (52.4)	54 (49.5)	163 (53.4)	
Reasons for major selection	Myself	191 (46.1)	51 (46.8)	140 (45.9)	.949
	Correspond to score	21 (5.1)	5 (4.6)	16 (5.2)	
	Recommendation of family	104 (25.1)	25 (22.9)	79 (25.9)	
	Recommendation of others	24 (5.8)	7 (6.4)	17 (5.6)	
	High employment rate	74 (17.9)	21 (19.3)	53 (17.4)	
Reselection of major	Yes	277 (66.9)	73 (67.0)	204 (66.9)	.540
	No	137 (33.1)	36 (33.0)	101 (33.1)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

점, 가정적 성 고정관념 2.3 ± 0.61 점, 지적 성 고정관념 2.3 ± 0.84 점, 사회적 성 고정관념 1.8 ± 0.72 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1 ± 0.46 점, 여학생 2.2 ± 0.47 점이며, 취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3 ± 0.52 점, 여학생 2.4 ± 0.49 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여학생의 경우 2학년은 2.1 ± 0.44 점, 3학년은 2.3 ± 0.45 점, 4학년은 2.4 ± 0.50 점으로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있음이라고 대답한 경우 2.5 ± 0.46 점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 < .001$).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는

Table 2. Description of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N=414)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
Gender stereotype	2.4±0.47	2.6±0.48	2.4±0.45	.093
Domestic	2.3±0.61	2.6±0.67	2.2±0.56	<.001
Social	1.8±0.72	2.0±0.76	1.7±0.69	.021
Occupational	2.8±0.60	2.8±0.59	2.8±0.61	.608
Physical	2.8±0.72	2.8±0.73	2.8±0.72	.985
Psychological	2.4±0.61	2.5±0.65	2.4±0.59	.005
Intellectual	2.3±0.84	2.5±0.84	2.2±0.83	.035
Self-efficacy	3.3±0.48	3.4±0.52	3.3±0.46	.113
General	3.4±0.51	3.4±0.55	3.3±0.49	.849
Social	3.1±0.53	3.1±0.53	3.1±0.53	.990
Academic stress	2.2±0.47	2.1±0.46	2.2±0.47	.520
Employment stress	2.4±0.50	2.3±0.52	2.4±0.49	.74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ble 3).

여학생의 경우 18~24세는 2.4±0.47점, 25~29세는 2.6±0.60점, 30세 이상 2.1±0.60점(p=.009), 2학년은 2.3±0.50점, 3학년은 2.3±0.44점, 4학년은 2.5±0.52점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실습을 경험한 경우 2.4±0.48점(p=.020), 현재 전공(학과)를 재선택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2.5±0.52점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2.5±0.49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3±0.54점(p=.034), 현재 전공(학과)를 재선택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2.5±0.60점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33) (Table 3).

4.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성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293$ ($p=.002$), 여학생의 경우 $r=0.182$ ($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71$ ($p<.001$), 여학생의 경우 $r=-0.449$ ($p<.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성 고정관념과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남학생 $r=0.261$ ($p=.006$), 여학생 $r=0.165$ ($p=.004$)이

며,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 남학생은 $r=0.636$ ($p<.001$), 여학생 $r=0.437$ ($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01$ ($p<.001$), 여학생의 경우 $r=-0.406$ ($p<.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고정관념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과 성 고정관념 하부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I로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beta=0.125$, $p=.009$).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beta=0.122$, $p=.014$),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beta=0.145$, $p=.017$).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beta=0.206$, $p=.048$),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beta=0.147$, $p=.012$) (Table 5).

Table 3.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14)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Male	p	Female	p	Male	p	Female	p
Age	18~24	2.2±0.46	.149	2.2±0.47	.087	2.3±0.52	.839	2.4±0.47	.009
	25~29	2.4±0.57		2.3±0.42		2.4±0.59		2.6±0.60	
	≥30	2.1±0.20		2.0±0.48		2.3±0.21		2.1±0.60	
Grade	2	2.1±0.41	.291	2.1±0.44	<.001	2.3±0.47	.314	2.3±0.50	.005
	3	2.2±0.48		2.2±0.45		2.4±0.56		2.3±0.44	
	4	2.3±0.61		2.4±0.50		2.5±0.56		2.5±0.52	
Living with parents	Yes	2.2±0.51	.232	2.2±0.44	.109	2.3±0.54	.034	2.3±0.46	.531
	No	2.3±0.47		2.3±0.51		2.5±0.49		2.4±0.54	
Average allowance a month (₩10,000)	≤10	2.0±0.47	.095	2.3±0.64	.708	2.2±0.52	.571	2.4±0.52	.633
	11~30	2.3±0.45		2.2±0.44		2.4±0.46		2.4±0.48	
	≥31	2.2±0.52		2.2±0.46		2.4±0.62		2.3±0.51	
Lifetimes smoking experience	No	2.2±0.47	.958	2.2±0.47	.264	2.4±0.56	.405	2.4±0.50	.222
	Yes	2.2±0.50		2.1±0.57		2.3±0.48		2.2±0.35	
Drinking frequency	Never	2.3±0.57	.355	2.2±0.46	.059	2.3±0.59	.441	2.4±0.51	.268
Exercise	1~2/week	2.2±0.46		2.2±0.46		2.4±0.50		2.3±0.48	
	≥3/week	2.1±0.40		2.5±0.64		2.2±0.54		2.6±0.44	
	Didn't	2.3±0.58	.562	2.2±0.47	.247	2.5±0.50	.047	2.4±0.50	.204
Academic score (full mark=4.5)	1~2/week	2.2±0.41		2.1±0.50		2.2±0.51		2.3±0.49	
	≥3/week	2.1±0.48		2.2±0.44		2.4±0.54		2.5±0.42	
	≤3.0	2.2±0.41	.689	2.4±0.44	.001	2.3±0.54	.141	2.5±0.42	.235
	3.1~3.5	2.2±0.48		2.3±0.47		2.5±0.46		2.4±0.44	
	3.6~4.0	2.3±0.43		2.1±0.46		2.1±0.60		2.3±0.6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4.1	2.1±0.45		2.1±0.45		2.4±0.37		2.3±0.60	
	Yes	2.2±0.52	.722	2.3±0.47	<.001	2.3±0.56	.947	2.4±0.48	.020
	No	2.2±0.45		2.1±0.45		2.3±0.50		2.3±0.50	
Reasons for major selection	Myself	2.2±0.48	.549	2.1±0.45	.002	2.3±0.53	.713	2.3±0.52	.250
	Correspond to score	1.9±0.47		2.5±0.57		2.3±0.31		2.6±0.47	
	Recommendation of family	2.2±0.44		2.3±0.45		2.5±0.51		2.4±0.41	
	Recommendation of others	2.2±0.50		2.2±0.44		2.4±0.46		2.3±0.50	
	High employment rate	2.3±0.56		2.3±0.47		2.3±0.47		2.3±0.47	
Reselection of major	Yes	2.2±0.50	.504	2.1±0.42	<.001	2.5±0.60	.033	2.5±0.52	.001
	No	2.2±0.45		2.5±0.4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직업적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Variables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Male		Female		Male		Female	
Gender stereotype	0.293	(.002)	0.182	(.001)	0.261	(.006)	0.165	(.004)
Domestic	0.406	(<.001)	0.164	(.004)	0.281	(.003)	0.133	(.021)
Social	0.384	(<.001)	0.145	(.011)	0.256	(.007)	0.224	(<.001)
Occupational	0.272	(.004)	0.192	(.001)	0.302	(.001)	0.180	(.002)
Physical	0.043	(.661)	0.106	(.064)	0.009	(.930)	0.073	(.202)
Psychological	0.148	(.125)	0.078	(.174)	0.135	(.162)	0.067	(.243)
Intellectual	-0.065	(.503)	0.095	(.099)	0.070	(.468)	0.073	(.202)
Self-efficacy	-0.571	(<.001)	-0.449	(<.001)	-0.501	(<.001)	-0.406	(<.001)
General	-0.585	(<.001)	-0.458	(<.001)	-0.483	(<.001)	-0.388	(<.001)
Social	-0.442	(<.001)	-0.263	(<.001)	-0.421	(<.001)	-0.285	(<.001)
Academic stress					0.636	(<.001)	0.437	(<.001)

Data are expressed a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Table 5.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Stress

Gender stereotype		Male		Female	
		β (SE)	p	β (SE)	p
Academic stress ^{a,b}					
Model I	Total	0.063 (0.044)	.153	0.122 (0.049)	.014
Model II	Domestic	0.125 (0.037)	.009	0.068 (0.048)	.232
	Social	0.035 (0.025)	.413	-0.003 (0.037)	.956
	Occupational	0.031 (0.039)	.545	0.145 (0.038)	.017
	Physical	0.018 (0.034)	.733	-0.005 (0.037)	.934
	Psychological	-0.069 (0.050)	.291	-0.045 (0.057)	.528
	Intellectual	-0.008 (0.034)	.891	0.023 (0.039)	.736
Employment stress ^{c,d}					
Model I	Total	0.063 (0.080)	.424	0.071 (0.055)	.181
Model II	Domestic	-0.011 (0.072)	.903	-0.049 (0.054)	.420
	Social	-0.092 (0.065)	.322	0.147 (0.041)	.012
	Occupational	0.206 (0.075)	.048	0.096 (0.043)	.141
	Physical	-0.110 (0.069)	.253	0.013 (0.042)	.834
	Psychological	-0.157 (0.099)	.201	-0.068 (0.063)	.371
	Intellectual	0.196 (0.072)	.091	0.016 (0.043)	.823

^aadjusted for self-efficacy in male.

^badjusted for grade, academic scor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reasons for major selection, reselection of major and self-efficacy in female.

^cadjusted for living with parents, exercise, reselection of major, academic stress and self-efficacy in male.

^dadjusted for age, grad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reselection of major, academic stress and self-efficacy in female.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사회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남학생 2.6점, 여학생 2.4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점

수가 높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성 고정관념에 대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학생 3.12점, 여학생 2.73점이었으며(Nam & Kim, 2005), Ahn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3.09점, 여학생 2.48점으로 일반 대학생이 간호 대학생보다 성 고정관념 점수가 높았다. 간호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성 고정관념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여성 중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한 남성이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고정관념이 낮으며, 성 구분을 초월하여 직업을 선택하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Pack & Lee, 2009).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Nam & Kim, 2005)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Lee & Kim, 2003).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 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학생의 경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여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Jwa, 2014).

성 고정관념의 하부 영역 중 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남녀 학생 모두 2.8점으로 가장 높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Lee, 2004; Pack & Lee, 2009)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른 하위영역의 성 고정관념에 비해 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더 높았다(Lee & Kim, 2003). 이는 간호학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Jo & Bang, 2003).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 2.0점, 여학생 1.7점으로 다른 성 고정관념의 하부영역 평균점수에 비해 낮아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Lee & Kim, 2003)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가장 낮았다(An & Chu, 2011).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Kim, 2008).

성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

관념이 증가할수록,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성 고정관념에 의해 신체적,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짓는지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사회적, 심리적인 성숙과 학업적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 고정관념이 높을 경우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생각하여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Igbo et al., 2015). 남자 간호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실습환경에서 성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Jung & Pack, 2011),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장래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학생의 경우 성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 고정관념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성 고정관념의 하부 영역 중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취업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었다. 성 고정관념이 높을 경우 직업의 선택에 있어 제한된 폭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으로(Igbo et al., 2015), 남학생의 경우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학생의 경우 취업이나 사회적 역할은 남성의 몫이고 가정 내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처럼 성 고정관념은 간호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었다. 향후 학교 및 임상교육환경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성에 따른 차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 남녀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O'Lynn, 2004). 또한 남녀 간호 학생을 위한 학습요구 및 교과과정 평가체계 등의 재정비를 통해 간호분야에 증가하는 남학생을 고려하는 적절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Kim et al., 2014). 또한 남자 간호 대학생의 긍정적인 학과 경험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역할모델, 멘토제 등 남학생 적응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거나(Lee et al., 2005), 간호의 양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Ahn et al., 2009).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 종교,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 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학과와의 경우 전공과목 학업 이외에 임상실습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과제 등이 더 많아져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Yang et al., 2014). 취업 스트레스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여부, 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연령, 학년, 임상실습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에서 공단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Pack 등(2002)의 연구에서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이론과 실제 임상환경의 차이, 실습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Cho, 200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남녀 간호 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이 성에 따른 역할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에 대한 보호자, 병원의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Jeon & Yeom, 2014) 향후 간호대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의 성 고정관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학생을 포함해 남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를 파악함으로써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성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파악한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신입생을 제외하고 2~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였다. 총 42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4명을 제외하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 여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평균평점(5점 만점) 남학생은 2.6 ± 0.48 점, 여학생의 2.4 ± 0.45 점으로 경계역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p=.093$). 학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1 ± 0.46 점, 여학생 2.2 ± 0.47 점, 취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3 ± 0.52 점, 여학생 2.4 ± 0.49 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남녀 간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증가하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녀 간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향후 간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평가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An ES, Chu SK.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11;17(1):14-21
- Ahn KH, Seo JM, Hwang SK.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Korean J Adult Nurs* 2009;21(6):652-665
- Ahn ES, Lee KJ, Kim EH. Sex-role and sex stereotype in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Women's Culture* 2001;8(0):27-50
- Cho YH.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5;19(1):64-73
- Hong HY.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Igbo JN, Onu VC, Obiyo NO. Impact of Gender Stereotype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SEGA Open* 2015;5(1):1-10
- Jung ES, No AY. The study is students of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self-efficacy and physical health. *Student Life Research* 2001;33:85-101
- Jeon HO, Yeom EY.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796-807
- Jwa HS.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4;34(2):334-366
- Jo HJ, Bang HJ. Effects of gender-stereotype on explicit and implicit self-construals of Korean women. *Korean J Woman Psych* 2003;8(3):101-122
- Joo HJ.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the evaluation of women managers. *Woman Studies Review* 2005;22(1):15-149
- Jung OB, Park HJ.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64-76
- Kim D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Social Science Review* 1993;63(2):45-56
- Kim M, Cho SH, Jeon KS.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 a systematic review. *Korean J Str Res* 2014;22(3):109-119
- Kim MH.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4;10(2):183-193
- Kim KH, Min HY. Relationships of employment commitment and sex stereotypes to coping behavior of female students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compared to 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6;13(2):167-186
- Kim SJ.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gender-role stereotype among youth. *Korea Ass Soc Welfare Studies* 2008;36(0):129-149
-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Lee KE, Kim NS. The effect of sexuality course on sex-role stereotyp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3;9(1):5-17
- Lee KJ, Kim MY.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 Adult Nurs* 2014;26(1):46-57
- Lee JS, Kim NJ, Doo HJ, An JH, Lee YK.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5;14(2):159-169
- Lee JH, Jang EY, Lee SM.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2;37(2):12-24
- Nam SH, Kim MA.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2005;17(4):561-572
- O'Lynn CE.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 Nurs Educ* 2004;43(5):229-236
- Park HS, Bea YJ, Ju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2;11(4):621-631
- Pack JM, Lee SJ.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9;20(4):412-420
- Pack HS, Ha JH, Lee MH.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role identity, gender stereotyp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5):2962-2970
-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5):464-481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663-671
- Shin DW.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12;17(1):3-22
- Song YS.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2;18(1):71-80
- Yang YK, Han KS, Bea MH, Yang SH.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 Str Res 2014;22(1):23-24
- Yoo KS, Shin DW.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14(6):3849-3869
- Yun MH, Shin HS, Seo HJ. A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bout vo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0;29(4):305-327